

# 민주당, 계파 갈등 해소 구슬땀... 비명계 공천TF 대거 합류

총선공천제도TF 1차 회의 개최  
11명 중 9명 비이재명계 인사 분류  
李 대표 “투명한 공천시스템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총선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를 열고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공정한 공천제도 수립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TF 구성엔 친(親)이재명계로 구성된 당 지도부와 달리,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눈길을 끌고 있다.

TF는 당내 계파인 이낙연계와 정세균계를 끌고루 등용한 탕평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TF에서 친이재명계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공천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총 11명의 TF 의원 중에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문진석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을 제외한 9명이 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대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고,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부단장도 지난 대선 때 이 전 대표를 도왔다. 김영배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체제 아래서 정무실장을 맡았고, 배재정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였을 때 비서실장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 대변인이었던 조승래 의원과 정 전 총리 캠프에서 일했던 송옥주 의원

도 합류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며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우려했던 인물이며 이소영 의원도 지난 전당대회에서 비이재명계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 생) 주자로 나온 강훈식 의원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TF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가장 핵심적인 정치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민주주의의

한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 내에서 공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합리적인, 그리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TF 단장은 “총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선 공천 기준을 ‘경쟁력’에 뒤

한다”며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당 결집력을 높이고 총선 승리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TF 회의를 마친 후 이날 열리는 비이재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당내 의견은 때와 장소 가릴 것 없이 많이 들어야 한다”며 비이재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 50명이 모인 최대 모임 ‘더좋은미래’와 비공개 회동을 하며 당 안팎 현안과 당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더좋은미래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전날(1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거취 문제에 대해 “(그것에) 방점을 두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김기현, ‘연포탕’ 행보 지속... 내홍 수습 속도

〈국민의힘 당대표〉 〈연대·포용·탕평〉

안철수, 황교안 등 당권 경쟁자 회동  
일부 최고의원 이준석계 배척 ‘불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권 경쟁자였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 행보에 공감했다. 안철수 의원과 회동이 이어 황 전 대표까지 만나 ‘연포탕’(연대·포용·탕평)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준석 전 대표 측을 배척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윤(非윤석열)계에 대해선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기현 대표는 14일 낮 1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 1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했다. 오찬 회동은 김 대표가 황 전 대표에게 직접 제안한 뒤 성사됐다.

황 전 대표는 전당대회 패배 이후 부정 경선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뒤 김 대표 사퇴까지 요구했다. 김 대표는 황 전 대표의 행보와 별개로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신으로 품고 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황교안 전 당 대표와 오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려는 모습이다.

황 전 대표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잘하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서로 많은 공감을 나눴다”고 했다. 황 전 대표가 제기했던 의혹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황 전 대표 역시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새로 세워졌으니 당이 정상화되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 필요하다”며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오찬 회동에서는 ▲민생 ▲경제 ▲일자리 ▲집값 ▲세금 등 현안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데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툰 이준석 전 대표 측과 화해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연포탕 내에 이준석 전 대표 자리가 있는지” 문자 “특정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특정인을 말해야 하냐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공감한다면 민주당 인사라고 해도 큰 틀에서 대통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 측 인사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당협위원장과 회동 여부에 대해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준석계 인사를 배척하는 모습이다. 이준석계도 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다. 김 대표의 입장과 다르게 양측이 통합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尹 대통령 “주69시간 근로 개편안 재검토”

대통령실 MZ세대 등 대국민 소통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방안(개편안)’에 대한 보완·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방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집중근로가 필요

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개편안을 발표하며 “MZ세대는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발표 이후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확산했고 ‘MZ 노조’ 모임인 새고침노동자협의회도 정부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와 관련,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MZ세대 노조와 IT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한편, 현장 방문과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김기현 지도부, 19일 첫 고위당정협의회

### 당정, ‘원팀’ 체제 본격화... 한일관계·가뭄대책 등 논의 예정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위당정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한화진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수석,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함께한다.

이번 고위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16~17일 1박 2일간 일본에 방문한 뒤 열리는 만큼 ▲한일

정상회담 성과 및 향후 계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방안 등과 함께 최근 남부지역 가뭄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원팀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김 대표와 매일 2차례 정기 회동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한덕수 총리와 만나 유기적인 당정 관계 수립을 약속했다. /최영훈 기자

## 대통령실 “尹 대통령 訪日, 양국 악순환 끊을 것”

대통령실은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의 정상회담 등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적인 교류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의 방문 외교는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박2일 일본 방문 세부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김 실장은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정책과 장벽을 해소하고 양국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과 만찬으로 상호 개인적 신뢰를 다지면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익 기자